





6·25전쟁 납북자란?

6·25전쟁 납북자란 '6·25전쟁 이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북한에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6·25전쟁 중에 북한은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라 각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청장년을 납북해갔습니다.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가족과 함께 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 아들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 딸로서 아직도 그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 오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40대 ○○○



손 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하기로 결심했어요.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손기정 선수의 머리 위에 우승을 상징하는 월계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요. 하지만 손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에 선명히 그려진 일장기(일본국기) 때문에 고개를 들기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손기정 선수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출근길에 신문사 동료에게 신문기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손기정 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보도하자고 했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를 했어요. 이 일로 동료들과 함께 연행돼 가혹한 고문을 받고 40일만에 풀려났지만 결국 기자직을 그만두고 신문사 또한 9개월간 신문을 발행할 수 없었어요. 이후 광복과 함께 복직되었고 신문사 국장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6·25전쟁이 일어나고 주위에서 피하라는 권유가 많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납북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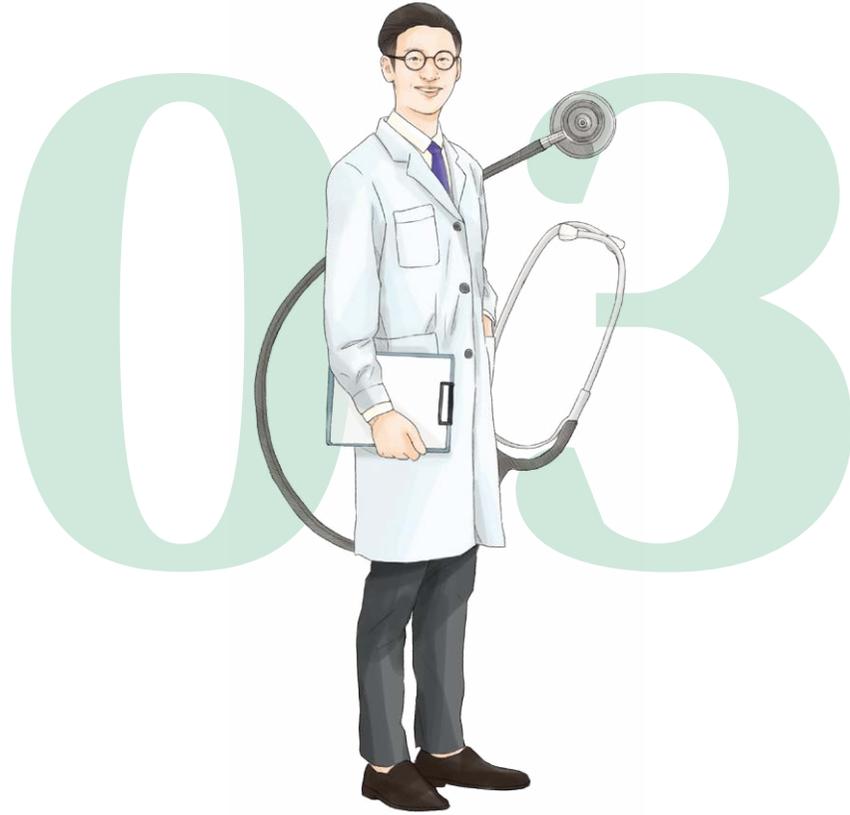
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



배움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교에 일본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조선총독부 경찰들이 갑자기 들어와 제자를 강제로 끌고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울분을 삭이는 것 밖에는요. 제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학생이니 공부만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광복이 되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이 학교로 들어왔고 사상교육을 하고 북한 노래를 연습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황을 보러 출근하였다가 납북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40대 ○○○



전쟁이 나더라도 주위에 다치고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대한제국(1897-1910)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병원을 개업했어요.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조선총독부 경찰에 의해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병사를 치료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을 위하여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하였고, 다친 의사(義士)에게 의료품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광복 이후에는 정치 활동에도 뜻이 있어 상해임시정부의 인사가 많았던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했어요.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아이들은 피난을 보냈어요. 하지만 주위에 다친 사람들이 많아 의사인 저는 차마 피난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탱크 소리가 나서 급히 병원을 나섰지만 발각되어 납북되었어요.

법원에서 일하는 30대 ○○○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 제 꿈은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조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법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억울한 조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혼란한 사회분위기에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직후 집에서 피신하던 중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안전한 데로 모시겠다.”는 말에 따라 나섰다가 납북되어 아직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50대 ○○○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현재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제국(1897-1910) 시기에 태어나 역사의 고비를 모두 겪었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1910-1945)를 지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신간회,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였지만 조국이 광복되는 그날까지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일제가 왜곡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여 관련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도 하였고, 195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조국에 바칠 각오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여 가족들과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피난을 했지만 북측 요원에 의해 납북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20대 ○○○



**수업 중에 큰소리가 났어요.
천둥같은 소리 말이에요.**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드디어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어 우리도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 내용이 어려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가 많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교에 의용군*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며 동참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무섭고 두려워서 집으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학교 기숙사가 폐쇄되어 외출도 면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국군의 전력에 UN군까지 가세했다는 말을 듣고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북측 요원에 의해 납북되었어요.

*의용군: 국가나 사회가 위급한 때에 이를 구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대나 군인

연구소에서 일하는 30대 ○○○



산과 들이 곧 내 일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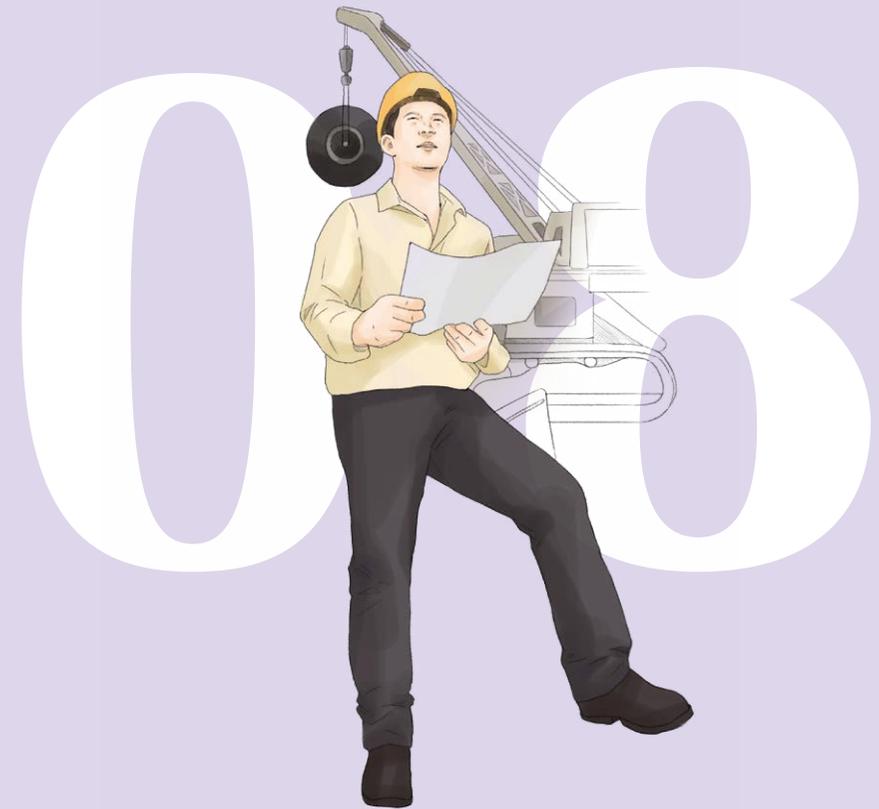
식물과 벌레, 농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1910-1945)에 태어나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졸업 후 식물과 벌레에 관하여 더 연구해보고 싶어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지역의 전통적인 재배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량을 늘리고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벌레도 덜 생기고 더 많은 열매가 생기는 방법을 알아 내어 이를 알리고자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광복이 되자 북한 주민들과 많은 기술자, 지식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1945년의 전국적인 대홍작과 만주,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료와 곡식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저를 데려갔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조선총독부는 각종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세웠어요. 그 중 건설과 철도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어요. 특히 광산이나 철도건설 등의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이 많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일을 할 때는 가족을 생각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했어요. 건설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수년간 기술을 익히면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를 북쪽으로 데려갔어요.

논밭에서 일하는 20대 ○○○



대대로 소를 키우고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어요.
우리 땅의 곡식들을 함께 나누어 기뻐지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소를 키웠어요.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조선총독부는 농사 지은 곡식과 가축들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함께 일하던 소와 피땀으로 길러진 곡식들은 자라나기 무섭게 빼앗겨 배에 실려 나갔어요. 드디어 광복이 되어 우리 땅에서 자란 곡식들을 가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흰 쌀밥을 먹고 싶었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 기뻐했어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6·25전쟁이 발발한 후 광음이 나더니 일하던 논밭으로 폭탄이 날아왔어요. 사람들에게서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소와 논밭을 두고 피난을 갈 수 없었어요. 운동장으로 모이라는 인민군의 말에 영문도 모른 채 나갔다가 납북되었어요.

공군에서 일하는 30대 ○○○



마음껏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웠고,
하늘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군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북쪽의 함경남도입니다. 어려서부터 날개가 달린 것을 보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며 항공학교가 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고향이 있는 한반도의 북부는 소련(1922-1991)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시를 받고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자 가족들은 모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일 대한민국에 공군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고향 동네를 폭격해야 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후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발각되어 납북되었습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교육프로그램

1950년, 직업 이야기

발 행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총 괄 홍양희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
기획·개발 김미금, 윤소라, 최제정
원 고 최제정
일 러 스톱 흥한나
디 자 인 아이디어스폰
발 행 일 2019년 3월

이 인쇄물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1950년, 직업이야기'를 위한 활동지입니다.
이 활동지의 저작권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있습니다.
Copyright©2019 National Memorial for Abductees during the Korean War of Korea. All right reserved.

